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탄 대축일
제29권 4호 별지(나해) 2008·12·25

⊙ 페루의 성탄 ⊙

성탄은
만일 당신의 가슴에 사랑이 조금 더 있으면,
성탄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면,
성탄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으시면,
성탄입니다.

만일 형제들 간에 정의를 위해 일하면,
성탄입니다.

만일 사랑으로 고통을 받아드리면,
성탄입니다.

만일 이웃의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면,
성탄입니다.

결국, 성탄이란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혀 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말과 함께 가시가 없는 꽃을 심으면서
삶을 찾아 나가는 등
사랑으로 좋은 일을 실천하는 때입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이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가정에
태어나시는 날입니다.

◆ 미겔 까부레호스 대주교 / 페루 투르힐료 대교구

*** 〈성탄, 그 분을 기다리며〉 ***

하얀 보석을 깔아놓은 듯
반짝이는 겨울대지위로
첫발을 딛고 오시는 님이여
작고 여린 몸이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어머니의 한숨조차
한 소절 노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가져오신
커다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여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의 기다림에 눈 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통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우리의 통곡이 얼마나
복에 겨운건지 가슴을 치며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오는
여명의 새벽처럼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당신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 시인 / 김윤환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
주님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전교수녀 구 마리아네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드림

성 탄 밤 미 사

(12월 24일, 밤 9시)

구 유 예 절

시작성가 : 전례성가 144
입당 전 해설
말씀 : 이사야서 55,1-13
아기 예수 입당 행렬
구유에 아기 예수 모심
분 향
아기예수 경배와 예물 봉헌

미 사

제1독서 이사야서 9,1-6

화 답 송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 하셨도다.<전례성가 62, 성탄 밤미사>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 드리라, 온누리여. 야훼께 노래 불러라. 주께 노래 불러 드려라. 그이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 널리 퍼뜨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하늘은 기뻐하라, 땅은 춤추라. 바다여 우렁차게 소리질러라. 그 안의 모든 것도 소리질러라. 들이여 흥겹게 우쭐거려라.⊙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라. 진실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제2독서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성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

복 음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

성 탄 낮 미 사

(12월 25일, 오전 11시)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사신
강생의 신비의 참뜻을 새깁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 52,7-10

화 답 송 ⊙땅끝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우러러 보았도다. <전례성가 62, 성탄 낮미사>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 손이 거룩하신 그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주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도다.⊙
○땅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온세상아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하라.
고에 맞춰 노래하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성 ⊙알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밝았으니, 모든 백성들아, 와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다.⊙

복 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밤미사 성가

입 당 : 137
봉 헌 : 146, 141
영 성 체 : 144, 137
퇴 장 : 142

낮미사 성가

입 당 : 146
봉 헌 : 141, 138
영성체 : 148, 137
퇴 장 : 142

[2008 성탄 메시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닫혔던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활짝 열려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천년 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한 소박한 시골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아주 여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 구원의 계시와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루카 1,51-52).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필리 2,7)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귀한 것이며 인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거부되는 행태가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과 낙태, 자살률은 매년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국이 되었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단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생명윤리법은 난자매매를 실질적으로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간배아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와해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만 좋아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해결될 것이란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는 인간을 극도의 이기주의로 내몰고 세상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마태 4,4).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다른 이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기심이나 소유욕에 지배되지 않고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지 않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모범적인 삶을 통해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갈등보다는 관용, 대립보다는 통합을 중시하는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구원의 봉사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탄생하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채 고통 받는 우리 민족과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개신교의 성탄절(聖誕節, Christmas) 이해

성탄절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다. 영어 명칭인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Christ mass)라는 단어의 줄임말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성육화하여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이다. 또 성탄절은 X-Mas라고도 표기되는데, X는 희랍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kristovs)의 첫 글자로, 이도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의 명칭이다.

성탄절처럼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로 보내는 날도 없을 것이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가 캐롤과 카드와 크리스마스트리에 묻혀서 축제의 꿈과 희망으로 함께 부풀어 오르는 듯하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실로 온 인류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반가운 날로서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지 그 날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과연 그 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에 성탄절의 참 본질을 모르는 일부 계층에 의하여 이 날이 여흥과 환락, 그리고 상술이 판치는 날이 된 점도 없지 않는 바, 이렇게 된 이면에는 구세주 예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왜곡 호도하려는 사단(the Satan)의 궤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날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참으로 진리위에 서서 이날을 올바르고도 즐거운 날로 맞아야 하겠다.

이러한 성탄절의 참 의미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우리 구원의 역사와 직결된 것이다.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형상(Imago Dei)대로 태초 에덴동산에서 이 우주의 대리 통치자요 대표로서 하느님과 교제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복된 존재였다. 전날 하느님은 이런 인간과, 모든 축복을 이간에게 주신 당신께 인간 스스로가 순종한다는 최소한의 증표가 될 선악과 언약(善惡果 言約)을 맺으면서 이를 어길 경우 분명 죽을 것이고 이를 지킬 때에만 생명을 주실 것을 서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저 버렸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죄는 분명 죽음으로 벌하시되 그 죄를 지은 인간 자체에게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 그리하여 일단 인간 대신 다른 존재가 인간의 죄 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새로이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소위 구속(救贖)의 법이 새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하느님을 향하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어서 남의 죄 값을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제물이 필요했다. 또한 인간을 향해서는 일단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인간이 이를 믿고 회개하면 하느님이 구원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적 보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는 동시에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서 서서 이를 완전히 중보(中保)할 조건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매우 특이한 존재가 요청됐다. 즉 하느님을 향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요구됐고 인간을 향해서는 하느님 자체의 보증이 필요했다. 따라서 본래 제 2위 성자(聖子)이셨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인간에게 삼위 하느님을 대표하여 보증을 주시는 분으로 나서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중에는 완전한 제물이 없으므로 자신이 하느님을 향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자 새로이 성육신(聖肉身)하셨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구약 시대 동물 희생 제사의 법은 이런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구속 희생을 예고하는 예표에 불과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실로 인간의 여러 문제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 그 자체를 위한 것이며, 그것도 하느님이 비천한 죄인의 신분을 취하시어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전 우주적인 기쁨의 날이지만, 그것은 경건하고도 신성한 기쁨이며, 우리의 구주로 태어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인간끼리도 서로 돕고 나누며 가슴을 열고 진지한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의 기쁨의 날이지 결코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방종이 허용되는 의미로서의 기쁨의 날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전 구속사적 환희와 아울러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마굿간 구유위에 나신 아기 예수의 겸손한 탄생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성탄절의 본질이 회복되는 참다운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개신교 잡지에서